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7주일
제33권 35호(다해) 2013.7.28

[묵상]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무엇을 청해야하는지
어떻게 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청하십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되는 것은
일용할 양식 이상을 염려하는 욕심,
잘못한 이를 용서하지 못하는 교만함,
유혹에 늘 떨어지는 나약함,
이런 나의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청할 땐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뱀을 청하는데,
진갈을 청하는데,
그대로 주실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란 아버지가 뜻을 바꿀 때까지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따를 때까지,
내가 변할 수 있을 때까지
청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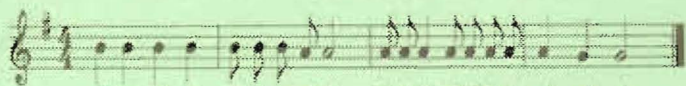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권순봉 요안나 (생) 김민중 안드레아, 한기웅 다니엘 & 인혜령 카타리나, 고킴벌리 안나
주 일 낮 미사	(연) 임현기 마르코, 이용식 베드로, 이경용 야고보, 조지 가보라, 전시웅 요한, 김금점 모니카, 고준희 제임스, 주용범 아브라함, 정학순 발바라, 신재건 프란치스코, 김종환 야고보, 이성엽 마리아 & 오영환 안드레아 (생) 이윤조 클라라, 김은 안나 & 오창애 안나, 김영길 안드레아 & 김복희 로사리아, 박인경 베드로, 김승리 리디아, 배의순 요한 보스코 & 손의윤 아녜스, 조덕현 벨라도, 박동호, 김은란 아녜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18,20-32

화답송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주님, 제 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 나 이 다.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나이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2,12-14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복 음 루카(Luke) 11,1-13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은갓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88	187	180
봉헌	382	264	230
성체	Mighty to Save	304	282
파견	Lord, I Lift Your Name	188	187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의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하느님 말씀과 문화

▶ 성경과 토착화

114). 강생의 신비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그 안에 들어 있는 문화적 규약들을 받
아들이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말씀이
바로 6세 교황께서 문화의 복음화라고 부르셨던 것을 통해
문화들을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면서 상이한 문화들로 전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가 그렇듯이 다
양한 문화들을 만날 수 있고 문화들이 서로 만나게 할 수 있는
매우 범문화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복음의 토착화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
회는, 하느님의 말씀이 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 맥락 안
에서 모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굳
게 믿습니다.

“말씀이 문화를 초월한다는 확신은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데,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 보편적 입장을 채택하고(창세 1,27-
28)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강복으로써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하며(창세 12,3; 18,18) 그리
스도교 복음 선포를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확장시킴으로써
마침내 이 입장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토착화는 표면적인 적응과 구분되어야 하고, 더구나
복음을 받아들여지기 쉽게 하려다가 복음의 유일성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혼합주의와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토
착화의 진정한 원형은 바로 말씀의 강생입니다.

“‘문화 변용’ 또는 ‘토착화’는, 복음에 의하여 변모되고 새롭게
태어난 문화가 자신의 전통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생활과 거행
과 사고의 독창적인 표현들을 만들어 내게 될 때 참으로 말씀
의 강생을 반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역 문화 안에서 누
룩의 역할을 하며, 그 문화 안에 들어 있는 말씀의 씨앗과 모
든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양시켜 그것을 복음의 가치들에 개방
되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 성경의 번역과 더욱 광범위한 보급

115). 하느님 말씀의 토착화는, 세상 안에서 교회가 지닌 사명
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상이
한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는 귀중한 작업을 통하여 성경이
보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번역 작업에 대해 언제
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기도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래전 본당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기업 중 손꼽히는 곳에 들어가 순탄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울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병세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던 그는 결국 상태가 나빠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대인 관계마저 힘들어져 사람들과 거의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그때부터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병은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 실망한 나머지 신앙과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어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병이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병을 극복하는 힘을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청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기도 내용을 바꾼 이후로 저는 몸과 정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신부님께 찾아올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다시 나 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힘을 주시면 저는 건널 것입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오래 기억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고 나서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기도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루카 11.4)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신앙인이 지녀야 할 참다운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자

비로운 분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 하느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사실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로와 힘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인이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루카 11.9) 이처럼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극한 상황이라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명동 지하성당 입구에 걸린 문구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 8.26)

이번주 전례봉사회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중철 아브라함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권경아 요세피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8월

- ◆ 성시간 : 1일(목) 저녁 미사와 함께 진행
- ◆ 성모신심미사 : 3일(토) 오전 8시30분

◆ 2013-2014 회기 첫 사목회

- 일시 : 오늘 주일(28일) 오후 1시 강당
- 새회기 들어 처음 열리는 사목회만큼 해당 상임위원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목위원, 제단제장 임원명단 홈페이지로 보내주세요.

2013~2014년 새사목회 각 분과위원들과 활동단체(소공동체, 제단체, 산하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한국학교)의 임원명단(e메일주소와 전화번호)을 홍보분과 e메일 103skcc@gmail.com 로 보내주세요.

◆ 가톨릭 신앙공부(Catholicism)에 초대합니다.

전세계 여행을 통해 가톨릭이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에 대한 비디오 신앙 프로그램, 예술, 건축, 문학, 음악을 통해 가톨릭 전통의 풍부함을 보여줍니다.

- 대상 : 전신자(10주코스)
- 일시 :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오후 3시30분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 그룹 성서공부반에 관심있으신 분들 사무실에 신청

매주 목요일 전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성서공부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수강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개강날짜 및 자세한 정보는 추후에 알려드립니다.

◆ 서예와 사군자에 관심있는 교우 모집합니다.

- 시간 : 매일 두번째주일과 마지막 주일 오후 1시10분
- 장소 : 2층 유아실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사목회/소공동체 임원 임명장 찾아가십시오

7월1일부터 시작된 새 사목회 및 소공동체 임원들 중 아직 임명장을 찾아가지 않은 분들은 사무실에 준비되어있으니 들르시기 바랍니다.

◆ LA대교구 다민족·다문화축제 연례 미사 봉헌

- 일시 : 9월28일 오전 10시
- 슬로건 : "Our Faith and Our Youth are Our Strength"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미사 전에 여러가지 행사가 준비되어있으니
오전 9시30분 전까지 도착하기 바랍니다.
- 기념책자 발행 및 배포 : 광고 및 도네이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는 8월26일까지 LA대교구(Office of Ethnic Ministry : 3424 Wilshire Blvd. LA, CA 90010)로 신청하십시오.
- 문의 : Michael Lau ☎(626)487-1292
E-mail : michaelauccc@gmail.com

◆ 백삼위 탁구동호회 회원 모집

- 대상 : 본당 교우 남녀노소
- 연습 및 강습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주일 오후 3시 강당
- 회비 : 연 \$50
- 문의 : 동호회장 김용스테파노 ☎(310)926-2248

◆ 본당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강당, 회의실과 유아실, 2층 모든 교실을 사용한 후 비품을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등은 물론 냉난방 기기를 반드시 꺼주세요. 각 방의 창문을 사용한 후에는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시설물은 한 두사람의 손길로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우 모든 분들의 관심있는 손길을 타야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성당을 나가는 모임의 책임자들은 문단속(성전문+현관문+바깥 Gate)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성전 안에 음식물과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미사 또는 특강,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먹던 음식이나 음료수를 들여갈 수 없습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7월28일(주일) : 토런스 서 2반(웰빙시레기국 \$3)
- 8월 한달동안 친교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장미순	금영도	김민석	김우용	김윤진	김일선
	김재영	박기돈	박정자	박종선	서재원	신순철
	신철규	오신재	원건희	이경태	이남현	이민상
	이석진	이우성	이효세	주영석	최진수	황인중
합계 : \$3,076						
주일미사 헌금 : \$2,370						
성전헌금	장미순	금영도	김민석	김우용	박기돈	신순철
	원건희	이경태	이남현	이민상	이석진	이우성
	이일길	이효세	최진수	황인중		
합계 : \$2,740						
감사헌금 : 이경태 배경락						

공지사항

◆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 모집

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도록 도움을 주기위하여 본당 마라톤 동호회가 14세 이상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장소: 사우스 하이스쿨
- 문의: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 KYCR 제22차 젊은이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8월1일(목)~4일(주일)
- 장소: 리버사이드 Divine Word 피정센터
- 지도신부: 정브라이언 가브리엘 신부
- 참가대상: 18세~30대 미혼/기혼 청년
- 회비: \$180
- 연락처: 이원록 ☎(562)688-4322

남가주 소식

◆ 신달자의 '문학과 종교' 초청 강의

- 일시: 8월4(주일) 오후 6시30분
- 장소: 한국순교자 성당(웨스트민스터)
- 강사: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
- 문의: 정찬열 시몬 ☎(714)530-3111

◆ 동정마리아 탄생축일 '봉헌을 위한 준비 특강'

- 일시: 8월7일(수)~8일(목) 오후 7시
- 장소: LA 성바실 본당 지하(637 S. Kingsley Dr.)
- 대상: 전신자 * 강의: 이용혁 요한 신부
- 준비물: 묵주, 성가책 (회비 \$5)
- 문의: ☎(213)255-6336
- 주관: 푸른군대 미주평의회(지도신부:박대덕 스테파노신부)

◆ '청실 홍실'만남의 장

- 일시: 8월11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LA 옥스포드 호텔
- 신청 및 문의: 정시몬 사무국장 (714)530-3111
- 주관: 남가주한인종신부제 협의회(김재동 요한 부제)

◆ CLC영신수련 침묵피정

- 일시: 8월23일(금)~25일(주일)
- 지도: 정구평(예수회 신부)
- 장소: Prince of Abbey(캘리포니아 오션사이드)
- 신청마감: 8월10일, 문의: 하세실리아(323)578-2230

소공동체 7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옥찬 수산나 213-675-0498 7/14(주일) 낮미사후
	2	김찬구 요한 701-6343	이근태 세르지오 999-5226 7/14(주일) 낮미사후 토런스 팍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7/12(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데오도시오 780-3258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7/14(주일)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명렬 라파엘 749-0276 7/13(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26-7348 7/12(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7/9(화)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804-7645	조정선 마리아 213-550-6653 7/12(금) 오후 7시 강당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7/21(주일) 오전 10시 델슨 팍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이병우 마리오 784-0585 7/2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P.V. 구역 합동반모임 7/13(토) 오전 11시 라이언 팍
	2	김명재 아가다 866-8778	합동 반모임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합동 반모임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2013~14회기 첫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구인

Paramounttariff.com (사무직 풀타임)

FMC규정에 따른 세계 유수의 회사임, 사우스베이

지역, 이중언어(한/영)가능자, 컴퓨터 필수, 시민/영주권자

* 이력서 e메일 요망 support@paramounttariff.com

너는 선물이니

사람마다 하느님을 부르는 자기만의 이름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거쳐 온 체험을 통해 자기 안에 형성된 하느님의 이미지가 이름이 되어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을 ‘참 좋으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언제나 제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며 퍼져 나가 하느님의 마음에 가닿게 하기 때문입니다.

딸을 대하는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렇듯, 저희 아버지도 외팔인 제게 무한정 약한 분이십니다. 야단 한번 치지않는 아버지의 무른 태도가 저를 버릇없게 만든다는 어머니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결같이 제게 너그러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수녀원에 오기 전까지 거의 십 년 동안 매일 저녁 버스 정류장으로 마중 나오셨습니다. 저는 다 커서까지도 어둠에 대한 무서움이 심해서 집 앞의 캄캄한 골목길을 겁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던 때라, 아버지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집을 나오셔서 제가 도착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에 있는 가로수처럼 늘 같은 자리에 서서 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내는 기다림의 시간을 헤아리지 못한 채 말입니다.

어느 겨울, 보통 때보다 더 늦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는 아버지께서 제 가방을 받아 들고 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널 기다렸다.”

버스가 설 때마다 네가 있나 없나 살피기에 지쳐화가 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네가 오면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 약해지지 않고 혼을 내야겠다고 다짐까지 했었다.” 아버지는 제가 혼자 집에 가게 하는 벌을 주겠다고 생각하며, 늘 계시던 자리를 비켜 숨으셨다고 했습니다. 몰래 제 뒤를 따라오면서 어떻게 하는지 볼 요량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짐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계시리라고 믿었던 곳에 아버지가 보이지않자 시무룩해지는 저를 보니, 더는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금방 환해지더니 날 향해 막 뛰어오더라. 세 살 꼬마 때처럼 폴짝거리며 나만 보고 뛰어오는 너를 보니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무슨 다짐을 했는지 다 잊고 그저 좋기만 하더라.”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가슴이 뻘근해져 왔습니다.

살면서 잘한 일보다는 잘못된 일이 더 많이 헤아려져 하

느님에게까지 면목없이 부끄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아플 때 약을 먹듯이, 저를 기다리시던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알게 해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을 떠올립니다. 저 때문에 무조건 행복해하는 분이 계심을 새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너는 있는 그대로 나에게 행복한 선물이다.”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로 인해 제 마음에도 행복이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신명희 엠마 /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녀

휴가철에 주일 지키기

여름 휴가철에 주일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휴가에 일부러 성당을 찾아나서는 일이 번거롭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거르는 것도 깨름칙합니다.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말이 아니라, 한 주를 시작하는 주간 첫날이며, 단순히 해의 날을 넘어 주님의 날입니다. 일요일과 주일은 그 마음부터 많이 다릅니다. 전자가 단순히 주간을 표시하기 위한 날이라면, 후자는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께 먼저 바치고 시작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단어들 속에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알게 모르게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요일은 그저 단순히 한 주간을 일곱으로 나누어 그중에 하루를 ‘해의 날’로 정해놓고 쉼을 허락하는 날에 불과하지만, 주일은 창세기의 창조질서에 따라 쉼을 마련한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뀝니다.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쉬신 날로, 쉼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를 손수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주님께 서 부활하신 날이며, 이날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일은 휴식일이며 동시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활을 미리 경축하는 커다란 축일입니다. 이 주일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온다고 해서 가볍게 넘기시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왕이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면 참 좋겠습니다.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소리를 낮추면

아름다운 노래도 계속 들으니 소음에 다름없고, 좋은 소리도 너무 크면 귀를 막게 되는데, 작은 소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숨을 죽이게 됩니다. 정작 마음을 기울이게 하는 건 작고 낮은 소리란 걸 알면서도 어째서 내 소리를 낼 땐 잊게 되는지. 내 이야기만 들어주지 않는 단 불평이 부끄럽습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